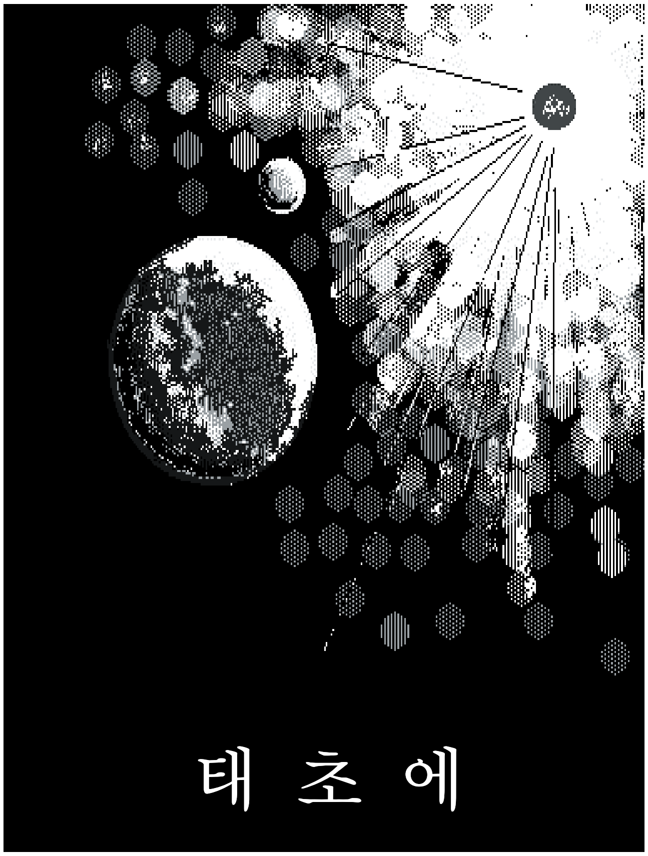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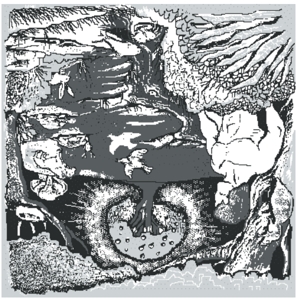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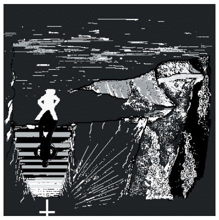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 하시니라. 이는 엿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음이라.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 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 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사람을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내어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이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창 1:1/출 20:11/창 2:8-9, 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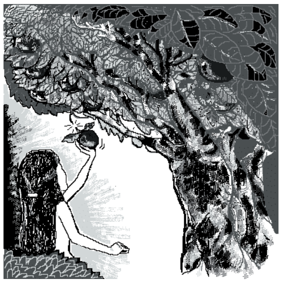


이것은 기록된바,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는 죄에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새명이기 때문이니라.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해하시려고 단 한 번 헌물로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 문제와 상관없이 두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예수님)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눈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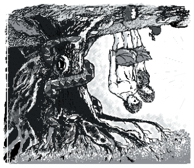
롬 3:10-12; 6:23/히 6:27-29/요 3:1618,36/살후 1:7-9.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ㅓ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요,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이러므로 너희의 시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일진대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눈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니라, 하였더라.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리것임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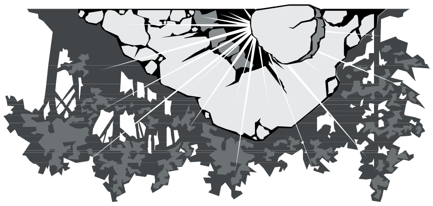
행 17:24-31/행 3:19,4:12/롬 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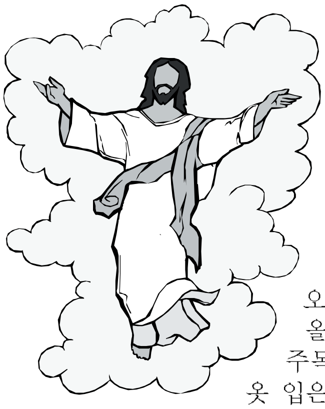
이때에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하니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임으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에 이 두 사람의 눈이 열리매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 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눈앞을 떠나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었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매 네게 알려 주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이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가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네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의 욕망이 네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거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어쓴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아담으로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사망이 모든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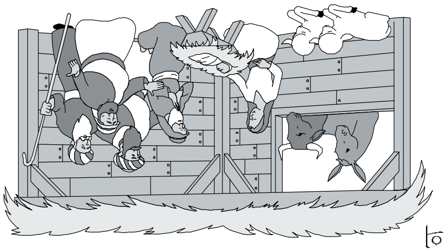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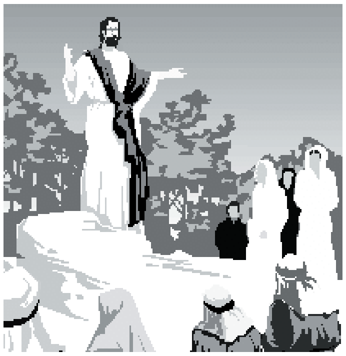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사랑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또 사로메가 예수님께 바르려고사 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 돋을 때에돌무덤에 가며 서로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무덤 문애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고 눈을 들어 보매 돌이 이미 굴려져 있더니 이는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돌무덤에 들어가서 긴 흰옷을 입은 한 창년이 오른쪽에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께서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분을 두었던 곳이니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더라, 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랄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뵙게 되리라, 하거니.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 주려고 달려가더라. 여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때에,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난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아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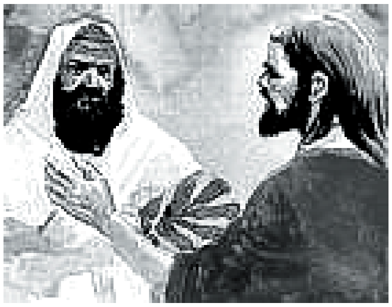
그분께서 수난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 주시고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지사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고 또 그들이 이르되,너희 갈라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즐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리.그 때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ㅔ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있는 것들로 하여금 다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을 끓게하시고 또 모든 혀로 하여금 예수 그릿도는 주시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이제 예소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밴 것이 드러났더니 그 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사람들 앞의 본보기로 삼고자 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글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녀 안에 수태된 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하니라. 해산할 날이 다 차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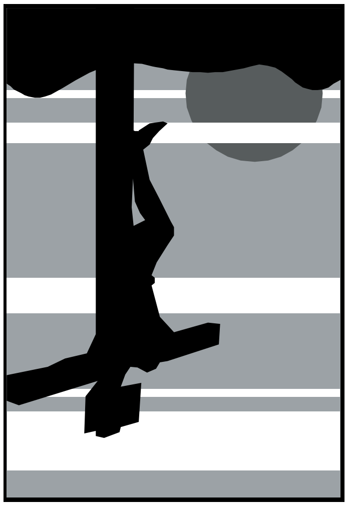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시더라. 그가 약삼십세 되었을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사라이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사람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매 갈릴리와 데가불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강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라.



하지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질투하여 그들이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사의하였느니라.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사형에 처하려고 의논한 뒤에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하거늘 총독이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하였느냐? 하거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하더라. 빌라도가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 하라, 하매 이에 온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아오리이다, 하니라.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입히더라. 그들이 가시나무로 왕과을 엮어 그분의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 주며 그분 앞에서 물릎을 꿇고 그분을 종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성취을 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식초를 적신 해면을